

# 讀書力 指導는 學力向上의 밑거름이 되었다

◇ 讀書力 不振兒 ‘鍾植’이의 圖書館 利用指導 實踐記 ◇

金 完 起

(春川敎大附屬國民校 教師)

## 1. 4月 어느 날의 發見

1966年度 새 學期에 들어 처음으로 3學年 以上 兒童을 對象으로 全敎科 綜合學力考査를 4月 中旬에 實施했다. 이 結果에서 놀라운 事實을 發見했다.

〈4학년 달반〉에 在學中인 ‘鍾植’이의 全敎科 學力平均이 3學年 以上 全學年中의 最低인 平均 30點 得點이었다. 全職員과 擔任教師까지 한결같이 ‘鍾植’이는 〈學力不振兒〉 내지는 〈읽기도 제대로 못하는 問題兒〉라고 만 단정할 뿐, 치료 方法을 강구하려 하지 않는다.

圖書館을 全擔한 筆者는

“필시 鍾植이의 學力不振은 읽기 能力과 相關이 있을 것이다”

라는 진 단으로 圖書館에서 活用하고 있는 鍾植이의

〈독서 카아드〉를 찾아 보았다. 나의 예측은 들어 맞았다. 다른 아이들은 4月 19日 現在 대개 10回~15回程度 圖書館을 찾아 讀書한 記錄이 있었는데 鍾植이의 카아드에는 白紙 그대로 있었다.

## 2. 鍾植이의 讀解力 檢查

한 달이 넘도록 圖書館을 한번도 利用하지 않은 鍾植이에게는 반드시 要因이 개재되어 있을 것으로 단정하고 우선 第1次 要因分析으로 讀解力(읽기能力) 檢查를 實施해 보았다. 서울大學校 師範大學 教育心理研究室에서 刊行한 “국민학교 상급용 읽기표준화검사(가형)”을 택하여 鍾植이의 읽기능력을 테스트했다. 40個의 問題에 40分間 制限시간으로 實施했던 結果는 다음과 같다.

(表 1)

종식이의 읽기 능력(4학년 도시 기준에 의거)					
성명	항목	성별	득점사항	전국 도시 기준과의 비교	비고
이 종식	남	득점	7점	40문항 가운데 7개의 정답	
		비교	-10.7점	17.7 - 7 = -10.7 (전국기준) (종식) (전국기준과 비교)	

※ 이 종식군의 독해능력은 전국 도시 기준 17.7점 보다 10.7점이 낮은 7점의 득 해력을 갖고 있었다.

위 (表1)에 나타난 것처럼 鍾植이는 確實히 읽기 能力의 不足이 學力低下의 重要한 原因임을 알게되었다.

## 3. 鍾植이의 家庭環境과 興味検査

(表 2)

鍾植이 家庭環境 調査					
① 職業	業一基성복 피복상점 경영(商業)				
② 住所	所一·自宅 · 방 · 합석집				
	· 공부방 따로 없음				
③ 家族	族一·父 · 母 · 兄 1 · 남동생 1				
	· 여동생 1				
④ 生活道具	一·라디오 · 자전거 · 수도 · 전등				
	· 신문구독 1				
⑤ 父母學力	一·父一中卒 42歲 · 母一國卒 40歲				
⑥ 環境	境一·市場近處 · 만화가게 옆				

4月 23日 鍾植이 家庭을 訪問하고 父母와 面談도 해보고, 住宅의 位置도 살폈으나 父母 모두 商業에 專念할 뿐, 兒童教育에 큰 關心을 보여주지 않았다. 혼히 常識의 인 이야기인

“그녀석 공부는 안하고 만화가게에 쫓아 다니니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라고 말할 뿐이다. 不幸히도 鍾植이 집은 市場 근처이므로 만화가게가 즐비하게 늘어져 있었음을 발견하고 鍾植이를 새로운 학습분위기를 조성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우선 다음날 擔任教師의 協助를 얻어 鍾植이의 〈讀書 흥미 檢査〉를 실시해 보았다.

(表 3)

鍾植이의 興味検査	
• 친한 동무—없음(고립아)…3학년 때의 交友圖 (Sociogram)	
• 좋아하는 學科—美術	
• 공부하고 가는 곳—만화가게	
• 독서 흥미—없음(읽기 능력 부족으로)	
• 시험 볼때—무섭다	
• 文章 讀解—글자는 겨우 읽으나 빨리 읽지 못함	

(表3)에 나타난 鍾植이의 興味検査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우선 第1次의 치료 지도를 하기로 했다.

첫째, 鍾植이가 좋아하는 美術에 관한 册을 권장하면서 圖書館 利用指導를 中心으로 독서興味를 갖게 하여 만화를 멀리하게 한다.

둘째, 도서관 이용지도를 계속해서 읽기 능력을 점차 길러 주면서 단계적인 독서지도를 통하여 學力向上을 꾀한다.

#### 4. 빈약한 讀書力 때문에 열등의식을 갖게 된 鍾植이를 圖書館에서 반갑게 맞아 주자.

읽기 不足으로 學力이 낮고, 學力이 낮은 탓으로 친구가 없어 고립되었고, 고립을 메꾸기 위하여 만화가게로 찾아갔고, 만화가게를 즐겨 간 탓으로 건전한 독서를 하지 못했던 鍾植이에게 새로운 학습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하겠다는 결심을 實行에 옮기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圖書館 利用指導 計劃을 세웠다.

- 어떤 책을 읽히어 만화를 버리게 할 것인가?
- 어떤 方法으로 鍾植이가 즐겨 도서관을 찾아오게 할 것인가?
- 鍾植이의 읽기 속도는 어떻게 늘릴까?
- 鍾植이의 文章 이해력(독해력)을 어떻게 指導할 것인가?

이와같은 4가지 指導方向을 세우고 5月부터 圖書館 利用指導를 通하여 계단적 치료에 들어갔다.

#### 5. 제1단계……좋지 못한 읽기 습관의 제거

5月 6日(金)

공부가 끝나고 鍾植이를 도서관으로 안내했다. 나는 鍾植이 손목을 잡고 친절히 書架沿에 가서 「그림있는 애기책」을 하나씩 꺼내 보이면서 그림이 좋고 만화보다 훨씬 더 재미있는 내용이라고 하면서 내가 읽어 주었다. 鍾植이에게 몇 구절 읽으라고 했더니 끼엄 끼엄 읽는 것을 보고 나는 가느다란 희망을 가졌다. 그날 「그림 있는 이순신」이란 책을 대여해 주었다. 대개 1년~2년 아동이 즐겨 읽는 책이다. 읽는데 까지 읽고 5月 9日 도서관에 들려 나에게 직접 반납하도록 했다.

5月 8日(日)

일요일이다. 남들이 부러워 할 만큼 학력이 비교적 좋다는 부속국민학교에도 이러한 독해력 부진아가 있는데 하물며 많은 다른 학교에도 독해력 부진으로 학력이 저하되고 있는 많은 어린이를 생각하며 예고없이 市場 근처에 있는 鍾植이네 대문을 열었다. 책상에서 무엇을 열심히 읽고 있었다. 내가 대여해 준 「그림 있는 이순신」은 보이지 않고 역시 만화를 떨려다 보고 있는 것이다. 鍾植이를 구치랄 하지 않았다. 웃는 얼굴로 대여해 준 「그림 있는 이순신」에 대해 물으니 벌써 어제 다 읽었다는 것이다. 은근히 내용을 물어보았다. 읽기는 확실히 읽었다. 그냥 칭찬하면서 「그림 있는 이 순신」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돌아왔다.

5月 9日(月)

약속대로 鍾植이가 대여해간 책을 갖고 왔다. 읽고 생각나는 점을 말해 보라니 그저 「재미있다」는 대답이다.

학교 공부가 싫어서 만화를 보았다는 것이다.

“그러면 도서관에서 선생님이 재미있는 책을 대여해 줄 터이니 만화를 읽지 않겠지?”

鍾植이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서 매일 방과후 30分程度로 「그림있는 애기책」을 읽고 가기로 약속했다.

그리고 鍾植이에게 다음과 같은 독서 카드를 따로 만들어 주고 5月 10日부터 계속해서 도서관에서 책을 읽도록 약속했다.

(表 4)

#### 종식이의 독서 기록

5월 9일 부터~6월 4일 까지

1. 읽은 시간——하루 30분 정도
2. 읽을 책
  - 역 사——“그림있는 명장 이야기”——제 1주
  - 과 학——“그림있는 과학모험 이야기”——제 2주
  - 옛 이야기——“그림있는 옛날 이야기”——제 3주
  - 동 화——“그림있는 한국 동화”——제 4주

## 보기 &lt;역사-제 1주&gt;

		학 교 예 서					
날	짜	월	화	수	목	금	토
읽은 시간		30分	35分	32分	40分	32分	45分
읽은 페이지		10 P	12 P	13 P	15 P	12 P	16 P
10분간 읽은 페이지 수		3 P	3.2 P	3.1 P	4 P	4 P	4.2 P
이해도		△	△	□	△	□	□
		가 정 예 서					
날	짜	월	화	수	목	금	토

※ &lt;과학&gt; &lt;옛이야기&gt; &lt;동화&gt; 모두 양식이 같음

※ 제2~4주 까지 같은 양식으로 지도함

※ ○.....상 □.....중 △.....하 (문장 이해도)

※ 이 기록은 본교 연구발표회(66. 10. 14) 때 공개되었음

6月 4日(土)

鍾植이를 매일 공부가 끝난 다음 약 30分間식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읽은 것을 독서 카아드에 적고, 집에서 읽은 것을 선생님께 보이고 카아드에 적는 것을 계속했다. 그러니까 꽤 한 달이 지난 날이다. <4학년 달반> 아이들도 鍾植이가 도서관을 매일 利用하고 담임교사와 圖書館 선생님이 특별히 보살펴 준다는 얘기에 鍾植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담임 교사도 수업 중 前에 없던 鍾植이의 읽기 기회를 주게되니 종식이

도 차츰 즐거운 낯으로 학교생활을 하고 학교도서관을 찾아 오기 시작했다.

## 6. 제2단계.....第2次 讀解力 評價

4月 18日 鍾植이의 讀解力 檢查 以後 約 2個月이 지난 6月 10日 第2次 독해력 검사를 實施 해 보았다. 그 동안 向上된 差의 檢證을 하기 위해서이다. 그結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表 5)

종식이의 읽기 능력 향상도(제2차)							
점사자	성별	전국기준	특점사항	1차 (1966. 4. 20)	2차 (1966. 6. 10)	비교	
이종식	남	17.7	특점 비교	7점	9점	-10.7점	-8.7점 1차 실시보다 2개의 정답률을 더 나타내었음

위 (表 5)에 나타난 것처럼 鍾植이의 讀解力은 얼마의 向上을 보고 있었다. 아직도 4學年 基準에는 未達되지만 계속 努力하면 向上할 可能性을 보였다. 한편 鍾植이의 「읽기 速度検査」를 實施했다. 이 읽기 速度検査는 어느 程度 빨리 읽어내며(讀書力), 어느 程度 文章 독해력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10개의 文章理解 測定表를 만들어 速度検査를 實施했다.

(表6)에 나타난 鍾植이의 읽기 速度와 全體 學級兒童 水準과 比較하기 위하여 <4학년 달반> 兒童中 す, 우, 미, 양, 가에 해당하는 兒童을 각 1名씩 표집하여 같은 문제로 실시했더니 '양'에 해당하는 어린이의 讀書速度에 가깝다는 것을 發見하고 이제는 鍾植이의 讀解

(表 6)

- 읽기 속도 점수
- 읽은 题材—「구름은 흘려도」(재일교포 安本末子의 手記)
- 읽기 시작한 시간—14시 10분 30초
- 끝난 시간—14시 20분 30초
- 읽기 소요시간—10분
- 질문에 대한 정답수(문장 이해도)—10개의 질문 중 5개의 정답
- 총 글자수—1,200자
- 1분간 읽은 자수—120자

力이 全學級에서 最下位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이 速度検査의 結果를 보고 鍾植이에게 '독서지도'方向을 차츰 달리하여 도서의 원장도 '그림 얘기책'에서 짧은 文章으로 된 冊을 紹介하기 시작했다.

6月 27日(月)

좀 오랫만에 鍾植이 擔任教師와 같이 鍾植이 집을 찾았다. 학교 宿題를 열심히 하면서 요즈음 도서관에 서 대여 해 온 '童話集'과 '위인전'을 읽고 있었다.

擔任教師와 둘이서 鍾植이가 요지음 읽고 있는 '에디슨의 어린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鍾植이를 격려했다.

### 7. 第3단계……讀書 方法의 指導

7월에 들어와서 本格的으로 鍾植이의 읽기方法 指導에 들어갔다. 鍾植이는 나쁜 버릇을 갖고 있었다. 그것은 冊을 읽을 때마다 입술을 흔직이면서 소리를 내고 읽는 것이다. 이것이 읽기 速度를 저해하는 要因이고 文章을 빠리 理解 못하는데서 온 習慣이었다.

7月부터는 默讀(Silent reading)을 指導했다. 目讀이라고 하며 일명 速讀이라고 하는데 꼭 힘들었다. 할수 없이 손가락을 입술에 대고 눈으로만 읽는 연습을 처음에 試圖해 보았다. 며칠 계속하니 實現이 可能했다. 7月에 들어서도 계속 매일 30分간씩 독서를 자진해서 했고 꼭 책을 대여 해 갔다. 그래서 鍾植이는 7月 11일에 施賞한 全校 多讀學生 선발에 뽑히어 學校長賞을 탔다. 鍾植이 얼굴이 學校新聞에 紹介되고 读書感賞文이 학교 신문에 실리게 되어 鍾植이는 꼭 독서한 보람을 갖고 더욱 즐겨 도서관을 찾는다.

### 8. 第4단계……理解力 위주의 读書指導

7月은 주로 理解力 위주의 精讀指導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도서관 利用指導를 했다.

① 국어 낱말 이해가 곤난하면 도서관에서 <사전>으로 스스로 찾아 보자.

② 사회과 문제 해결이 어려우면 도서관에서 <아동백과사전>을 비롯한 참고도서를 찾아 해결해 보자.

③ 자연과 圖解 해결이 곤난하면 도서관에서 <자연학습도감>과 그 밖의 책을 찾아 해결하자.

④ 여러 종류의 신문과 잡지를 즐겨 찾아 읽으며 폭넓은 독서를 하자.

⑤ 글자를 읽기에 앞서 글의 내용을 읽자. 부분이 아니라 글 전체를 생각하며 읽자.

⑥ 교과서나 참고도서를 읽을 때에는 끝까지 읽는 버릇을 갖자.

⑦ 어떤 책이든 책의 <차례>를 보고, 읽고 싶은 내용을 찾아서 읽자.

⑧ 책에 써 있다고 반드시 옳은 것이 아니니 언제나 옳고 그름을 비판적으로 읽도록 하자.

위와 같은 指導內容에 따라 7月 한달 동안 鍾植이의 圖書館 利用指導를 계속했다.

그러니까 한 學期가 다 끝나는 7月 中旬이다. 學期末 綜合學力検査를 全教科에 걸쳐 實施하기로 했다. 기대가 커다. 지난 3月 학기초에 실시했을 때 全學級에서 最下位點數인 鍾植이의 學力에서 그 동안 圖書館을 통한 读書指導 결과에서 얼마나 向上을 보았느냐의 결과를 검증하는 기회이다. 7月 學力検査 結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表 7)

과목	실시 제 1 차 (4월 12일)	제 2 차 (7월 15일)	비교
국 어	12	42	+30
산 수	8	34	+26
사 회	12	50	+38
자 연	10	26	+16
음 악	14	35	+21
미 술	10	40	+30
평 均	11	38	+27
學級位置	50/50	42/50	

정말 보람을 느꼈다.

"읽기 能力과 學力과는 相關關係가 있다"는 事實을 다시 절감할 수 있었고 의도적인 독서지도 내지는 圖書館 利用指導는 學力向上의 밑거름이 된다는 나의 事例研究에서 검증할 수 있었다.

### 9. 기쁜 얼굴의 鍾植이 開學 날

여름放學에도 鍾植이를 매주 한번씩 학교에 나와 책을 대여 해 가지고, 감상문을 적게 하여 여름 방학에 鍾植이가 읽은 冊은 6卷이나 된다.

9月 1日 개학날이다. 나는 모르는 체 아이들 틈에 끼어 鍾植이의 태도를 살폈다. 꼭 명랑하고 웃는 얼굴이다. 빈약한 독서력 때문에 근심하고 뒷골목 만화가게에 찾아가던 鍾植이는 도서관에도 즐겨 드나들고 이 날 개학날에도 도서관에 찾아와 새로 들어 온 책들을 찾아 읽어 본다.

鍾植이처럼 어느 學校에서나 많은 어린이가 피아노 치는 기술과 마찬가지로 读書力도 정확한 方法으로 꾸준한 教師의 指導와 圖書館 利用指導의 필요성을 느끼는 어린이가 얼마나 많이 숨어 살고 있는가를 생각할 때 圖書館의 門은 恒常 열려져 있어야 할 것이다.